

북한의 역사서술에 나타난 조선왕조의 유산

鄭 杜 熙

- I. 서론
- II. 북한 역사학의 몇 가지 특성
- III. 북한의 조선시대적 유산
- IV. 앞으로의 전망

I. 서론

1980년대 후반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면서 오랜 세월 철저하게 단절되었던 남북의 교류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었다.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질적 요소가 남북간의 교류와 통합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리란 비판적인 전망이 앞을 가리고 있을 당시, 남북 사이의 역사적 논의만큼은 비교적 용이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비록 체제는 크게 다를 지라도 수천년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남북한 역사학의 공통적 기반을 찾으려는 노력이 경주되었던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열정적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소박한 통일에 대한 열기와 어울려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 남북한의 통일이 쉽사리 이루어 질 수도 없으며, 설부른 통

일은 남북한 모두에 커다란 재앙이 될지도 모른다는 신중론(혹은 비판론)이 크게 제기되면서, 남북한의 역사학에 엄연히 존재하는 차이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같다. 역사서술에 현재적 관점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현재 남북한의 현실적 상황이 서로 다른 것만큼이나 그 역사학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무나 독특하고 너무나 기형적인 것으로 보이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북한의 정치적 이념적 현실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면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인식은 점차 그 설득력을 넓혀 가고 있는 것 같다.¹⁾

그러나 나는 남북한 역사학 사이에 공통점이 많으나 차이점이 많으나, 혹은 북한의 역사학에 투영된 현재적 관점의 토대가 무엇이냐는 논의만으로 만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최근 몇 년간 틈틈이 북한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나도 북한의 역사학에 그들의 현실적 그들이 너무나 짙게 드러져 있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나는 그들의 역사서술의 기본적 특성이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나 조선왕조 후기의 전통과 닮은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전체적이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역사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의 역사학 그 자체 뿐 아니라 그 역사학에 투영되게 마련인 현실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이해라는 차원으로까지 이 논의를 심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역사학과 그 현실에 대하여 침착하고도 전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때 비로소 “학문연구에서의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1) 북한의 역사학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다음과 같은 책들에 의해 이미 시도된 바가 있었다.

김정배 편,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올유문화사, 1989)

안병우·도진순 편, 『북한의 한국사 인식』 (I, II) (한길사, 1990)

김정배 편, 『북한의 우리고대사 인식』 (I, II) (대륙연구소 출판부, 1991) 등.

그리고 『한국사 시민강좌』 제21집에서는 「오늘의 북한 역사학」이라는 특집을 통하여 북한 역사학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방향도 모색될 수가 있다고 믿는다.

II. 북한 역사학의 몇 가지 특성

1. 북방 왕조를 잇는 정통성의 강조

북한의 역사서를 읽다보면 북한은 역사적 정통이 북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위하여 이들은 삼국시대의 고구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고구려는 삼국의 통합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밀려오는 수, 당의 침략을 물리쳐 “민족의 존엄”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라와 당의 연합군에 의해 고구려가 멸망하자, 발해에 의해 고구려의 역사가 계승되었으며, 고려왕조에 의해 그 옛날의 고구려의 영토를 상당히 회복하면서 왕조의 역사적 정통성을 회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고려의 후삼국통일은 외세의 힘을 빌지 않고 자력으로 이룩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남북 분단 상황에 있어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바로 이러한 역사적 정통을 계승하였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것이었다. 최근 북한의 학계는 단군의 존재에 대하여 커다란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평양부근에서 단군의 무덤을 발굴하였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역사서술은 단군조선-고구려-발해-고려-북한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정통성을 더욱 가다듬고 있는 것 같다.

북한에서 강조하는 이들 왕조들은 모두 평양이나 개성을 수도로 삼았던 국가였으며, 지리적인 의미에서도 북한이 이를 강조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이들은 이러한 북방왕조를 강조하는 이유를 외세를 배격하고 소위 자주적으로 통일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찾았던 것이다.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중국왕조들의 거듭된 침략과 맞섰다는 사실은 당나라와 연합하여 통일을 꾀하였던 신라의 경우와 너무나 대조되었다. 그러므로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의 남쪽 상당부분을 통합하였어도 북쪽의 고구려 영토는 발해에 의해 계승되어 뒷날 고려에 의해 완전히 국토가 통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역사적 정통을 잇는 맥에서 조선왕조는 배제되었다. 이들은 조선왕조의 건국과정에서 정몽주를 죽이고 고려의 마지막 왕을 폐위시킨 것을 “비열하고도 보기드문 잔인한” 찬탈행위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건국 후에 개성에서 서울로 수도를 옮긴 것도 “이성계 일파가 고려왕조 전복과 이를 전후한 시기의 저들의 비열한 책동에 대한 개경인민의 저주와 규탄을 그 자리에 앉아서 막아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것”²⁾이라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중국에 대한 사대외교와 유교주의를 표방한 조선왕조는 그들의 표현대로라면 외세에 의존하여 나라를 세우겠다는 “비열한 행위”였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건국 그 자체를 부정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북한은 시간적으로는 조선왕조 다음이지만 역사적으로나 명분으로는 고려의 정통을 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늘날 북한이 철저한 자력갱생주의를 주장하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국시로 내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북한의 정통론의 현실적 필요성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남북 분단 상황에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 역사의 진정한 정통성을 계승한 국가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역사서술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알 수가 있다.

2) 1977년 북한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에서 간행한 『조선통사』(상)를 서울에 있는 도서출판 오월에서 1988년에 출판하였는데, 바로 이 책의 p. 286에서 인용한 것이다. 단 서울에서 출판된 이 책에서는 원본에 있던 김일성의 어록을 모두 삭제하였기 때문에 원본과는 다른 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2. 대외항쟁사와 농민전쟁의 강조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대외항쟁사와 농민전쟁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역사서인 『조선통사』(1977)를 보면 삼국시대 서술의 약 22%에 달하는 분량을 고구려와 수, 당과의 전쟁사에 할애하고 있으며, 고려시대 경우는 거란, 몽고 등과의 항쟁사가 30% 정도에 달하고 있다. 이를 조합하여 보면 대외 항쟁사는 개항이전의 역사를 다룬 『조선통사』의 상권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역사서술에 있어서 다른 어떤 분야 보다도 대외항쟁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항쟁사에서는 항상 ‘인민’이 항쟁의 주체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수나라와의 전쟁을 서술한 부분의 제목을 “612년 수나라 300만 대군을 물리친 고구려 인민의 빛나는 승리”라고 하고, 고려시대 거란과의 투쟁을 서술한 부분의 제목을 “거란침략군을 물리친 고려인민들의 투쟁”이라 한데서도 이 점이 잘 나타나 있다. 대외항쟁에 있어서 소위 “인민”들의 역할을 강조한 한 대목을 인용하여 보면 이런 북한 역사서술의 한 특성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거란 침략을 반대하는 고려인민들의 투쟁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준엄한 시련이었다. 전쟁과정에는 일시적인 실패와 전쟁의 준엄한 시련 앞에 당황하여 동요하거나 변절한 비겁한 통치배들도 있었으나 애국적인 고려인민은 피어린 투쟁을 벌려 나라와 자유와 독립을 끝까지 지켜냈다. 이러한 애국적인 인민들의 희생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서회, 강감찬을 비롯한 애국적인 장군들의 전략과 전술이 성과적으로 관철될 수 있었고 따라서 거란 침략자들에게 결정적 패배를 안길 수 있었다. 3)

3) 위의 책, p.208.

위의 인용문은 고려시대 거란과의 항쟁을 서술한 마지막 대목이다. 여기서도 이들은 “애국적인 고려인민들”의 투쟁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대외항쟁사는 항상 위와 같은 식으로 서술되게 마련이지만, 여기서 인민이란 과연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후의 문맥으로 본다면 인민은 농민을 주축으로 하는 피지배계층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위의 서술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인민이란 소수의 “비겁한 통치배”를 제외한 전 국민을 지칭하여 마치 민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말하자면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대외항쟁사를 매우 중요시하였으며, 이 대외항쟁의 주체는 항상 인민들이었다. 그리고 이 인민들은 곧 농민이었다.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대외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국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면, 대내적으로는 대외항쟁의 주체인 인민, 곧 농민들이 부도덕한 지배층의 수탈에 대항하는 사회적 모순을 타파하려는 농민전쟁을 강조하였다. 개항 이전의 역사를 다룬 『조선통사』의 상권 가운데 역대의 농민반란에 대한 서술이 전체의 약 10%정도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외항쟁사 15%와 합해 보면 전체의 약 25% 정도가 이 두 분야의 서술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다.

사실 북한에서는 계급사관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려고 많은 시도를 하였다. 이미 사유재산이 발생하는 청동기시대에 계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항상 생산의 주 담당자였던 피지배층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음을 수시로 지적하였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인민이란 바로 이 생산의 담당자요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피지배층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역사서술이 계급사관으로 일관한 것은 결코 아니며, 오히려 민족의 주체성이라는 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대외 항쟁사에 커다란 비중을 둔 것도 그 항쟁에서 피재배층의 계급적 특수성과 역사성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민족의 침략에 맞선 우리 민족의 투쟁을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계급사관과 배외성이 짝은 민족사관이 서로 뒤섞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급은 민족의 총 구성원 중에서 일부만을 포함하는 것이지만, 민족이란 전체 계급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두 용어는 상호모순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이점이 매우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다. 이는 유물론에 입각한다 하면서도 김일성의 주체사관을 유달리 강조하는 오늘날 북한의 정치적 이념적 현실이 역사서술에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전통적 종교, 사상의 일체부정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 역사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거의 모든 사상체계에 대하여 무차별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다. 원시공동체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적 분화가 처음 시작되었던 청동기 시대의 종교에 대한 『조선통사』의 다음과 같은 서술은 북한의 종교 사상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원시공동체 제도가 무너져 계급이 발생하고 지배계급이 주권을 틀어쥐자 자연 및 사회현상에 대한 무지에 기초한 신앙과 종교는 계급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회악을 신비적이며 초자연적인 힘에 돌림으로써 피지배계급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지배계급과 착취제도를 옹호하는데 이용되었다. 계급사회에서 종교는 인민대중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는 ‘아편’이었다. 즉 그것은 지배계급의 통치를 강화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으며 도구였다.⁴⁾

종교신앙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큰 영향을

4) 위의 책, p.37

남겼던 모든 종교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불교에 대하여는 “미신적이며 허위적인 교리로서 인민들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봉건지배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데 복무”⁵⁾하였다고 부정하였으며, 유교에 대하여도 “유교의 종교적 관념론적 세계관은 우리 나라에서 유물론적인 철학사상의 발전을 방해하였으며 과학문화발전에 막대한 해독”⁶⁾을 끼쳤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불교나 유교를 전적으로 부정하기만 하면 우리 역사에서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도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우리의 문화적 전통에 관하여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남아있는 뛰어난 예술품들에 배여 있는 종교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민족문화발전에 대한 외래종교의 이러한 심한 해독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문화를 다 부정하지 않고 그것을 심중히 다루는 것은 우리의 민족적 예술이 이러한 심한 장애들을 뚫고 일정하게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인민출신의 예술가들은 통치계급의 현실적 및 사상적 강요에 의하여 종교예술품들을 만들었지만 그들은 역시 이 속에서도 인민적이며 민족적인 예술을 창조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또 그들의 지향은 일정하게 그 창작품들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종교예술이면서도 조선의 것은 다른 나라의 것과 구별되는 뚜렷한 예술적 특색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⁷⁾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서술에서 불교나 유교를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종교가 외래종교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외래종교가 “민족적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애를

5) 위의 책, P.125

6) 위의 책, p. 125

7) 위의 책, P.157

“인민출신의 예술가”들이 극복함으로써 민족예술이 발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남아있는 민족예술품 가운데 남아있는 종교적 영향은 역시 다른 나라의 것과 구별되는 “조선적인 것”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역사서술에서는 소위 민족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⁸⁾

4.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현대사의 강조

북한의 역사서술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북한에서는 현대사를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해방 이후의 현대사를 특별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전체 서술에서 대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 북한체제가 성립하기까지 그들이 겪었던 변화에 따라 현대사 서술의 방향도 변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1958년판 『조선통사』(하)의 제22장에는,

1945년 8월 15일 조선인민은 위대한 소련군대에 의하여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소련군대에 의한 조선해방은 조선인민의 역사발전에 새 기원으로 되었다. 해방된 조선인민은 제2차세계대전 후 국제적으로 조성된 유리한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길에 들어섰다.⁹⁾

고 서술할 정도로 해방과정에서의 소련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87년판 『조선통사』(하)에서는 1958년판과는 달리 이 모든 과정이 김일성의 영도로 이루어 졌음을 다음과 같이 특별히 강조하고

8) 이상의 서술은 나의 논문 『『조선통사』를 통해 본 북한의 역사 인식』(서강인문논총 3, 1994)에서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전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9) 『조선통사』(하)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1958), p. 287.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라고 하시면서 이 길만이 우리 인민에게 자유와 권리를 주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 주며 나라의 완전자주독립을 보장하여 줄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새 조선 건설을 위하여 우리 인민이 지향하는 민주주의는 구미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사회주의국가의 민주주의를 그대로 본딴것도 아니였다. 그것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는 조선의 현실에 가장 알맞는 새형의 민주주의였다.¹⁰⁾

1958년판의 『조선통사』(하)에서 쏘련군의 기여와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하여, 1987년판에서는 김일성 개인의 영향과 북한식 사회주의의 건설이라는 점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러한 건국과정을 “주체형의 혁명적당의 탄생”이라고 하여, 이 때부터 벌써 주체사상에 입각한 북한고유의 입장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의 복구과정을 자랑스럽게 서술하면서, 북한에서의 주체사상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기초건설은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특수한 사회경제적조건과 환경에서 진행되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기성리론이나 다른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서는 우리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옹계 해결할 수 없었다.¹¹⁾

10) 『조선통사』(하) (사회과학출판사, 1987), p. 304.

11) 앞의 책, p. 533.

이처럼 북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당면한 현실은 자본주의 세계와는 물론이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형편과도 판이하게 다른 것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현실을 북한고유의 이념으로 극복해야 됨을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의 필요성을 드러내려는 의도였다. 결국 이러한 김일성의 주체사상들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북한 역사학의 기본목표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1977년판 『조선통사』(상)의 머리말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시기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사회과학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를 비롯한 일련의 로작과 교시들에서 력사연구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삼아야 할 방법론적 무기를 안겨주시고 그 구체적 제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가 역사를 학습하자는 것은 왕이나 봉건통치배들의 력사를 알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알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민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잘 알아야만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소유할 수 있으며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존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서는 1970년대 중반이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김일성의 영도를 강조하고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사를 서술하였으며, 또 그 역사는 “민족적 긍지와 혁명적 자존심”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서술의 기조는 다른 모든 책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살펴본 것 처럼 북한의 역사서술은 그 안에 사소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없었으며, 특히 1970년대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런 성향이 더욱 경직되고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¹²⁾

12) 이 부분은 모두 나의 논문, 「북한의 역사학 체계 개관」(『동아연구』 33, 1997), pp. 131-146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그러므로 북한에서는 다양한 견해를 가진 여러 종류의 역사서가 나올 수가 없으며, 오직 북한 정권의 견해를 반영할 뿐이다. 북한의 역사학은 이처럼 정권에 철저하게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역사학의 체계가 수십년 동안 거의 변화지 않았다는 것은 북한정권의 기본 속성이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외세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성과 민족지상주의라는 두 가지의 기본요소는 결국 북한의 김일성 식 주체사상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었으며, 그와 같은 북한 당국의 기본 방침은 조금도 변하지도, 완화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방침이 이처럼 완강하다면, 그들의 역사학도 더욱 경직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북한의 역사학에 대한 이 글을 준비하면서, 나는 북한에서 서술된 세계사, 혹은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책이 나온 것이 있는지를 무척 알고 싶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 그런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나의 능력으로는 그런 책의 유무를 확인하기가 불가능하였다. 만약 북한에서 서술한 세계사나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북한 역사학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북한의 역사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들은 과연 세계의 역사를 그 주민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인가, 것처럼 북한이 특수한 사회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다른 나라의 역사를 서술하고 교육할 수가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버릴 수가 없었다. 어느 의미에서 북한은 그들이 그렇게나 떠받드는 주체사상이 만개한 완성된 사회로 보는 것 같다. 이러한 나의 판단이 맞는 것이라면 그들은 것처럼 완성된 유토피아를 외부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지켜야 할 필요만 있을 뿐, 더 이상 그 사회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사회였다. 이와 같은 북한체제에서는 역사란 단지 그들이 이룩했다고 믿는 하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며, 그런 과정을 방해하

는 국내외적인 위협에 대한 투쟁의 역사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사학이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사학적인 방법론만이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III. 북한의 조선시대적 유산

이상에서 언급한 북한 역사서술의 몇 가지 특성은 우리들에게 무척 생소하게 느껴지며, 김일성의 주체사관을 대할 때는 일종의 전율을 느낄 정도이다. 물론 그들의 계급사관이나 철저한 민족주의, 혹은 고유문화론 따위는 우리 학계의 일각에서도 흔히 들어오는 내용들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친숙한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북한의 역사서술이 우리들이 접하는 역사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덮을 정도는 결코 아니다. 북한에서는 현재의 북한체제가 그 이전의 전통사회의 모습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유난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전통문화라든가 가치라고 부르는 것들 모두는 비판과 부정의 대상이었으며, 이제 북한에서는 진정으로 바람직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역사만이 필요할 뿐이었다. 과거와의 단절이 이처럼 극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서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역사학의 차이점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일지도 모르며, 양자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지엽적인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나는 북한의 역사학, 혹은 그런 역사학에 반영된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좀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이 보기에 북한의 역사학과 그 현실이 너무나 기형적이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들은 역사에 있어서 과거의 인연과 완전히 단절된 돌연변이란 없다는 지극히 평범한 인식 위에

서 북한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나의 이런 생각은 다소 엉뚱한 데가 있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되었을 때 먼 옛날에 읽었던 한 편의 글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것은 Arnold J. Toynbee가 쓴 "Russia's Byzantine Heritage"라는 짹막한 논문이었다. 1948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Civilization on Trial*에 실려있는 이 글에서 그는 서구인들을 공포에 떨게하였던 소련의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명하려고 시도한 글이었다.¹³⁾ 1948년이라면 구소련이 그 정점을 향하여 육일승천 뻗어 나가기 시작하던 때였다. 전세계인, 그 가운데 특히 서구인들은 1917년 소련 혁명이 얼마나 잔혹하게 제정러시아의 전통을 끊어버렸던가를 잘 기억하고 있었으며, 또 스탈린에 의해 이루어진 상상을 초월하는 피의 숙청이 어떠하였는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나치독일에 의해 저질러진 잔혹한 만행과 제2차세계대전의 참혹한 피해에서 갓 벗어난 서구인들의 눈에 소련은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괴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다. 이럴 때 토인비는 당시의 소련이 역사상 유래가 없던, 그래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괴물이 아니라 그 소련도 그들의 비잔틴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러시아적 과거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음을 갈파하였던 것이다. 세속적 정치권력과 교회의 지배권을 한 몸에 장악한 제정 러시아의 전제적 황제권은 볼셰비키 혁명 이후 국가권력과 공산주의 세계혁명의 주도권을 일체시킨 소련의 체제와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토인비의 주장이 서양사학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가 펼친 논증이 제대로 된 것인지도 판단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나 돌출되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과거 속에서 어떤 지혜를 찾아보면 무엇인가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서구인들에 대한 토인비의 충고는 우리들에게

13) 이 책의 초판은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1948년에 나왔으나, 내가 읽은 것은 1955년에 나온 제7판이다.

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믿게 되었다.

1637년 여진족이 세운 청나라의 침략을 받고 조선이 항복한 이래 조선왕조는 커다란 위기를 맞았다. 유교이념이 지배하였던 조선왕조에서는 가정의 윤리(효)와 국가적 윤리(충)를 동일시하였다. 모든 관계를 부자 간의 관계로 설명하였던 당시에 있어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까지도 군신부자간의 윤리로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킨 사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인사건이요, 조선이 청에 항복하였다는 것은 신하가 두 임금을, 자식이 두 부모를 섬긴다는 패륜의 행위였던 것이다. 그들이 수백년에 걸쳐 쌓아왔던 유교적 명분을 가지고 이 사실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서 조선왕조의 지배체제에 이처럼 심각한 위기가 온 적은 없었던 것이다.

당시 이런 위기의 본질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던 송시열은 효종에게 올린 『기축봉사』라는 한 글에서 명나라와 조선왕조의 관계가 이미 태조 때부터 돈독하게 형성되어 지금까지 수백년간을 변치않고 유지하여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오랑캐는 임금과 아비를 죽인 원수이기에 같은 하늘 아래서 (이 오랑캐와) 함께 살 수는 없다는 마음을 굳게 다지셔야 합니다. 이런 독한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원한을 차곡 차곡 쌓으시어 평소의 온화한 말 가운데에도 그 깊은 곳에는 분노가 더욱 쌓이게 하십시오. 또한 금은 보화 속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臥薪嘗膽하여 원한을 갚아야 된다는 그 뜻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 . . 그리고 이러한 굳은 뜻을 5년, 7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결코 풀어서는 안됩니다. . . . (이렇게 하면 원한을 다 갚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그들과 맺은 모든 조약을 끊어 버리고 (나의) 이름을 바르게 하며 큰 이치를 밝혀서, 나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치부심하는 그에게 청나라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는 주장은 반역과 패륜 행위나 마찬가지였기에 그는 새로운 현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을 따른다면, “孔子로부터 이어져 오던 큰 가르침이 모두 땅에 떨어져서 三綱과 九法이 모두 무너져 내려 자식이 그 아비를 무시하게 되는 패륜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과 땅이 막히고 단혀서 사람이 짐승이나 다름없는 비천한 존재로 변할 것”이라고까지 극언하였던 것이다.¹⁴⁾

그러므로 송시열 이후 조선의 유교는 극도로 경직되었으며, 그 해석의 폭이 좁았다. 그 외의 것은 모두 이단시되었던 것이다. 망한 명나라는 정통이며, 그 정통은 청나라에 이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조선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그들은 현실보다 정통이라는 명분을 더욱 중요시 하였기 때문에, 현재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청나라를 정통 중국 왕조로 인정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존재하는 청나라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면 모든 시선을 차단해야만 하였다. 때문에 조선후기에는 그런 배타적인 지배이념과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은 이단시 되기에 이르렀으며, 주변의 정세로부터 조선이라는 국가를 고립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조선왕조의 이념이 자기방어적이고 폭력성을 띄게 되면서, 자연 국가의 체제도 경직되어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후기의 조선왕조는 하나의 이념, 하나의 지배계급만이 존재하는 사회로 전략해 갔다. 그리고 그 어떠한 다른 이념도, 심지어는 유교 그 자체에 대한 보다 융통성 있는 해석마저도 금기시 되었으며, 소수의 양반가문 이외에 그 어떤 사회세력도 그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정도로 성장할 수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 후기 사회는 활기 없는 고도의 안정을 구가하였으며, 그럴수록 대내외적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서서히 그 종말을 향해 갈 따름이었다.

14) 이상 송시열의 사상과 조선후기의 사회에 대하여는 나의 책, 『조선시대 인물의 재발견』 (일조각, 1997)의 제4장 “송시열” 부분의 pp.92-104를 참조할 것.

북한의 역사서에 반영된 현실은 17, 18세기의 산물이 아니라 20세기 중반 이후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사회와 같은 차원에 두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살펴본 것 처럼 북한의 역사서에서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 역사의 정통성을 이었다는 것을 것처럼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또 극도로 배외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전혀 생소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이라는 하나의 이념만이 존재하며 그 어떤 이질적인 요인도 결코 용납되지 않으며, 그 사상으로 무장된 하나의 세력만이 그 사회의 유일한 지배계급일 뿐이어서 그 어떤 도전도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여하한 혼란의 요인이 내재하여도 전혀 움직이지 않을 만큼 북한의 체제는 안정되어 있으며, 그 안정성이 공고하면 할수록 그 사회는 새로운 환경에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활력을 거의 소진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남북의 통일을 것처럼 강조하고 남한과 그 동맹국들에 대하여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어느 의미에선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에 처한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의 북한 사회처럼 단세포적인 사회구조와 지극히 공격적이면서도 동시에 자기방어적인 이념적 성격도 조선시대의 역사를 들여다 보면 아주 생소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역사학, 또 그 역사학의 운명을 철저히 지배하는 북한의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IV. 앞으로의 전망

앞서 언급한 글의 마지막에서 토인비는 비잔틴적 유산이 질게 드리워진 러시아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매우 암시적이며 통

찰력있는 말을 이렇게 남겨 두었다.

러시아는 서구인들과 공존할 수 있는 세계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반서구적이며 대립적인 자기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세워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서 그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운명적 기로에서 러시아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자신의 운명에 관한 러시아의 최종적 결정은, 결국 과거 비잔틴 세계가 그러했듯이, 러시아만이 정통을 이어 받았으며, 모든 세계를 교화시킬 운명을 이어받았다는 관념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낮과 망치’의 깃발 아래서도 결국은 십자가의 깃발 아래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여전히 ‘신성한 러시아’이며 모스크바는 여전히 ‘제3의 로마’인 것이다. “자연은 (갈퀴로 아무리 긁어 내보아야, 얼마 후에는) 또 다시 돌아 오고야 만다.”

1948년 당시 토인비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와 것처럼 단절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나 기형적 괴물로 보이는 러시아의 장래가 비잔틴 세계가 몰락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적으로 지적하면서,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자연은 또 다시 돌아 오고야 만다는 호라티우스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이 글을 끝맺었던 것이다. 당시의 러시아 국가체제의 기본 성격에 비잔틴적 유산이 이처럼 짙게 배어 있기 때문에, 그 유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종말도 유사할 것이라는 토인비의 가르침이 참으로 의미심장한 것이라면, 북한의 체제와 그 장래 운명에 대하여도 비슷한 예상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국내외적으로 자신의 운명이 다 했다는 것을 알리는 수많은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손도 쓰지도 않았으며, 쓸 수도 없었던 조선왕조와 같은 운명을 북한도 맞게 되리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일까? 단단하고 윤기나는 껍질을 깨고 보니 속은 말라 비틀어져 먹을 수 없게된 호도처럼.

이제 다시 이 심포지움의 주제로 돌아와 남북한 역사학의 이질성을 극복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를 밝히면서 발표를 마치려 한다. 북한의 역사학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한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순리적 방도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북한의 역사학은 변할 수 있는가? 북한의 역사학은 북한의 정치체제에 철저하게 예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북한의 체제가 변하지 않는 한 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역사학의 체질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체제는 변할 수 있는가? 이런 최종적인 문제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언적 진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조선후기의 역사적 유산과 너무도 흡사한 점이 있다는 나의 진단이 맞는 것이라면, 그 미래의 종착점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북한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자리에서 너무도 비판적인 전망을 내리게 된 나의 좁은 소견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모든 희망을 다 버린 것은 아니다. 나는 북한의 역사학과 북한의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보다 성숙해 져야 한다고 믿는다. 현재 북한은 우리를 인정하지도 않지만, 인정할 수도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세계적인 강국들은 그 누구도 앞장서서 우리식의 통일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들이 보다 성숙하며 장기적인 안목과 끈기있게 기다리는 자세로 북한에 대해 연구하며, 주변의 세계로부터 북한에 관한 가장 가치있는 정보를 지닌 중심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 앞에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